

“정부공모로 선정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항공MRO사업” 집중육성을 위한 호소문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을 정부 지원 항공MRO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우수한 기술력과 항공MRO 경험, 그리고 경남 사천에 소재한 항공산업단지 집적화 등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춘 KAI를 국토부의 공모에 의해 항공 MRO 사업자로 선정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와 협력으로 추진하였으나 미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AI는 2018년 항공정비 전문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이하 KAEMS)를 설립하고, KAEMS는 2019년 2월 제주항공 민항기 초도정비를 시작으로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주요 저비용 항공사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11월 신규 행거동을 준공하여 연간 100대 규모의 민항기를 정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등 정부에서 기대하는 항공MRO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도와 사천시, KAI는 항공MRO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4,229억원을 투입하여 사천읍 용당리 일원에 311,880㎡ 규모로 항공MRO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KAI의 항공MRO 사업은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경상남도과 사천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져야 함과 동시에 국민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항공MRO 사업자를 선정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인천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항공MRO 사업을 둘로 쪼개서 나누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으며, 국회와 정부는 지켜만 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2018년 인천국제공항에서 직접 항공정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는 인천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4차례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는 등 항공 MRO 사업을 두고 인천과 경남 사천의 지역싸움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움직임은 “경남지역을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문재인대통령의 국정과제 지역 공약과 국토교통부의 항공정책 기본 계획을 토대로 진행해 온 경상남도과 사천시의 발목을 붙잡는 행위로 지역 간 갈등은 불 보듯 뻔합니다.

물론 작은 소도시인 사천시가 거대도시인 인천광역시와의 싸움에서 불리한 것은 사실이고, 정부의 도움이 없다면 ‘필패(必敗)’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현실입니다.

간혹 항공MRO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포장되기도 하지만 인프라 구축에만 2천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연간 100대를 정비하더라도 매출은 500억원이 되지 않는 투자 비용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을 사천지역 KA와 인천국제공항공사로 분산 진행하게 되면 양 지역 모두가 공멸하게 될 것입니다.

또,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역행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는 각종 균형발전 정책에도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하였으며, 지방소도시는 소멸을 걱정하는데 반해 수도권은 집값 상승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이며,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체계 확립으로 균형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동량 기준으로 세계 2위인 인천공항이 항공 MRO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수도권에 치중된 일자리 쏠림을 가속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국토부가 KAI를 항공MRO 사업자로 지정할 당시 KAI를 중심으로 MRO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경남 서부지역이 MRO사업 중심지로 성장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한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부출자 기관이 참여하는 항공MRO 사업은 민간 항공정비 전문업체인 KAEMS 등 항공MRO 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항공산업의 균형발전과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항공MRO사업의 후발주자입니다. 걸음마 단계인 항공 MRO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항공산업육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항공산업의 발전과 사천 항공정비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하나, 항공정비산업의 분산은 국가균형발전과 항공산업 발전을 저해하므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하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항공정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선정한 사천 KAI 항공정비산업에 적극 지원하여야 합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고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개정을 저지하여야 합니다.

2021. 2.

경상남도지사, 경남지역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시·도의원, 시민단체·기업·노동자 대표 일동